

언제쯤 완전히 내려놓게 될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한번은 첫째 동연이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적이 있다. 그때 내게 울면서 이렇게 물었다. “아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보편적인 질문일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불안해질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간이 지나고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것은 밭을 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뤄주셔야 한다. 봄에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고 난 후, 겨울이 지나면 땅이 녹으면서 더 깊은 곳에 있던 돌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그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한다. 다음 해에도 밭을 또 갈아서 올라오는 돌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해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일차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수술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곳에 있던 문제들이 차례로 올라온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뤄주셔야 한다. 진리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우리가 그 진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살아가기까지 여러 번 다뤄주셔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깊이를 더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더 깊은 치유를 누리기에 이른다. 깊은 병의 경우 먼저 증상을 다스리고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더 깊은 병의 뿌리를 다루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 때도 시간의 간격을 두고 깊이를 더해가시는 걸 본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할수록 내 자아는 계속 작아진다. 불안하던 자아가 십자가에 드러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과정이다. 내려놓음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나아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은혜이다. 아브라함이 인도하심을 받은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도 했지만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다.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과 전쟁해야 하는 땅이기도 했다. 기근과 전쟁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드러난다. 우리가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기근과 거인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그것을 보기까지 고난과 좌절과 아픔의 시간이 요구된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야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 번번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 내 기대의 시선은 어김없이 내 능력과 소유에 머물러 있었다. 기근과 고난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잠시 허락하시는 도구다.

-이용규의 “기대”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3권 46호 2017년 11월 12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박태열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류영걸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346장 (새찬211장) 1,2,3절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사회자

성경봉독 (Scripture) 시편 46:10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향찬양대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사랑의 삶을 이루는 세가지 싸이클

첫번째: 하나님으로 부터 사랑을 받는 것 1

성찬예식 (Holy Communion)

파송찬양 (Closing Hymn) 219장 (새찬540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EM Worship / 1:15p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이우인 장로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 ◆ 창립 43주년 성령집회 장동찬 목사님 설교가 담긴 mp3 CD가 나왔습니다.
- ◆ 하나님의 은혜 설교 시리즈 말씀이 담긴 mp3 CD가 나왔습니다.
- ◆ **속장 인도자 교육**이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 ◆ **11월달과 12월달은 대심방 기간입니다.** 심방 스케줄은 각 속장님과 상의해 주십시오.
- ◆ **박태익목사 협동목사 추대식**이 11월 19일(주) 주일에배중에 있습니다.
- ◆ 친교는 박영자 권사님께서, 제단헌화는 김중열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부서별 소식

[선교부]

- ◆ 다음 주일 (11/19) 친교후에 선교부 모임있습니다.

월 중 모임 / 행사

11월 19일(일) 2:30pm 속장 인도자 교육

11월 19일(일) 11:00am 추수감사주일, 박태익목사 협동목사 추대식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11월 친 교 / 헌 화

5	여선교회 / 김중열성도
12	박영자권사 / 김중열성도
19	여선교회 / 김중열성도
26	천춘옥권사 / 김중열성도

지 난 주 일 통 계

헌금총액	\$3,105	출석총인원	55
십일조	\$922	KM 본예배	41
주정(주일)	\$985	주일학교	7
감사헌금	\$920	EM 예배	7
선교헌금	\$		
주일학교	\$58		
EM	\$220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이원희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